

## 꿈을 갖는 시절

김 세 완

세월은 흐르는 것이요, 인간의 노쇠 현상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부생 백년, 인생은 허망한 것이니 젊은 시절을 향락하자는 부류들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 줄 수 있고, 또는 삶의 목표를 잃은 채 회의와 한탄 속에서 방황하는 무리의 모습에

일면 동정이 가기는 하는 것이나,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사명과 주어진 삶의 엄숙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갖고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음이 더 한층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인생의 꽃봉오리 시절이다. 미래의 자신을 기약하고, 미래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힘찬 첫걸음을 배우는 시기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인류 사회의 발달은 수많은 先人の 꿈의 소산인 것이다. 오직 미래의 꿈을 위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딛고 달리는 땅이 가치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남가일몽」(南柯一夢)이어서는 안된다. 여름 밤 가로등을 들이받고 죽어가는 하루살이의 맹목적인 꿈이어서는 안된다. 젊은이의 꿈은 大望의 꿈이어야 하며, 젊은이의 꿈은 또한 확신의 꿈이어야 한다. 이 나라의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꿈, 미래의 자아 완성을 위해서 성실과 실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꿈이어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그 꿈이 진실로 삶의 가치를 규정지어 줄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으며, 인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꿈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동산의 전아여! 꿈꾸어야 한다.

시월 유신의 햇불 속에 조국 통일을 위한 길은 뚫렸다. 그리고 그 대망의 길은 신념과 성실과 비전(vision)을 가진 우리가 걸어야 한다.

동산의 아름다운 터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심고 가꾸어, 미래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자.

(이사장)